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정선영^{1*}, 박현숙¹, 조금이²

¹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²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The Study of Sexual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ung, Sun Young^{1*}, Park, Hyun Sook¹ and Jo, Geum, Yi²

¹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²Taegu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중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다체계적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입인 간호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603명의 중학생이었고,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 성허용성, 지각된 행위통제, 성행동 의도,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 친구집단 성태도, 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는 친구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 태도 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중학생 성행동을 51.0%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된 다체계적 성행동 관련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간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exu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603 middle school students (male 344, female 259).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the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sexual permissivenes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xual behavioral intentio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friends' attitudes to sex, exposure to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at explained 51.0% of the variance in sexual behavior were the friends' attitudes to sex, alcohol drinking experience, experience of sexual abuse, sexual permissiveness, exposure to pornography, sexual behavioral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pproach to a sexual education promo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consider multisystemic predictor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Sexual behavior, predict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왕성한 생리적 활동으로 인하여 신체가 급속히 성숙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생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험한 성행동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1].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성폭력

등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개인이나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 또한 청소년들은 감정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출방법이 잔인해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폭력과 학대를 행사하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1]. 뿐만 아니라 특히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경우 높은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Jung(Catholic Univ. of Daegu)

Tel: +82-53-650-4977 email: jungsy@cu.ac.kr

Received November 5, 2013 Revised November 20, 2013 Accepted December 5, 2013

성적 호기심에 비해 성행동 경험은 낮은 시기인 동시에 성역할이나 성태도 및 성행동을 형성하는 시기[2]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인 정보에 노출될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3]. 따라서 올바른 성행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최적 시기가 성에 대한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12~13세경이므로[4] 청소년의 성행동으로의 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성문제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행동은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성교제, 자위행위, 가벼운 신체적 접촉, 키스 and 애무, 성교 등이 포함된다[5]. 뿐만 아니라 대체로 청소년 본인이 감당하기 벅찬 행동인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준비되지 않은 관계여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문제 행동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인 문제 상황과 관련된다[4]. 이에 Kotchick 등[6]과 Chen 등[7]은 청소년의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및 문화적 맥락(context)을 포함하여 다체계적·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위험 성행동 모형을 검정하고, 청소년 위험 성행동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1, 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형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성행동의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포함시켜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다체계적 특성을 고려한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서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체계적인 요인으로는 개인 내적 요인, 가족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있다[6].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학년이나 나이[9], 성별[9], 위험행동 노출 정도[7], 성태도[5,8,10-13], 성허용성[5,8,10,11], 지각된 행위통제[8,13,14], 성행동의도[8,13,14] 등이 있었다. 주요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5,15]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1]이 있고,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음란물 접촉[8,16]과 친구집단 성태도[1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성충동[1], 성지식[18]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성행동을 위한 연구만이 아닌 다체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특히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성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중학생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학생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N)을 토대로 한

접근이 기본 틀이 될 수 있다[8,13]. 계획된 행위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19]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 행동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안전과 건강행위 이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도입되고 있으므로[20],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측하고, 성행동 예방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된 중학생 성행동에 대한 다체계적 요인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토대로 한 계획 행동 요인[8]을 모두 다루어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생의 성행동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각 요인이 성행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과 주변 환경적 접근에 필요한 청소년 성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청소년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입인 간호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3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603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02), 검정력 $1-\beta = .95$ 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 산정을 위해 불연속 더미변수를 포함한 19개의 관련변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한 556명이었다. 임의표집을 한 본 연구의 경우 이 기준과 청소년 설문지

의 신뢰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탈락률을 고려하여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설문 내용이 불충실한 47부를 제외한 603명(92.7%)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학급담임 및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교과목 담당 교사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을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6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태도

성태도는 Lee[20]의 성태도 측정 도구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이었다.

2.3.2 성허용성

성허용성은 Reiss[21]의 혼전 성허용성 척도를 Jeong, Park, Lee와 Park[22]이 번안·수정한 성허용성 척도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2.3.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Lee와 Chon[14]이 개발한 지각된 행위통제 척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위를 통제하려는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n[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3이었다.

2.3.4 성행동 의도

성행동 의도는 Lee와 Chon[14]이 개발한 성행동 의도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Lee와 Chon[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다.

2.3.5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Parker[23]가 제작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를 Moon과 Oh[24]가 한국 아동과 청소년에 맞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번안한 개발한 각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및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Moon과 Oh[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아버지의 양육태도 Cronbach's α =.74, 어머니의 양육태도 Cronbach's α =.7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7이었다.

2.3.6 친구 집단의 성태도

친구 집단의 성태도는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5]가 미혼모의 친구집단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8이었다.

2.3.7 음란물 접촉

음란물 접촉은 Lee[26]가 개발한 음란물 접촉 도구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란물의 접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8 성행동

성행동은 Min[13]이 개발한 성행동 척도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경험과 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5)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후 Multiple Regression의 stepwis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18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Level of Sexual Behavior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	Sexual Behavior			
			Mean (SD)	t or F	p	Scheffe
Grade	1st ^a	187 (31.0)	0.30 (0.77)	5.76	.003	a<b,c
	2nd ^b	189 (31.3)	0.56 (1.03)			
	3rd ^c	227 (37.6)	0.61 (1.06)			
Gender	Male	344 (57.0)	0.42 (0.88)	-2.38	.018	
	Female	259 (43.0)	0.61 (1.09)			
Religion	Have	353 (58.5)	0.47 (0.93)	-0.63	.527	
	Have not	250 (41.5)	0.52 (1.01)			
Economic status (million Won)	600≤	38 (6.3)	0.21 (0.66)	1.82	.142	
	400≤ -<600	88 (14.6)	0.45 (0.79)			
	200≤ -<400	323 (53.6)	0.57 (1.07)			
	<200	154 (25.5)	0.45 (0.92)			
Academic performance	High	158 (26.2)	0.56 (1.04)	1.84	.159	
	Middle	323 (53.6)	0.43 (0.05)			
	Low	122 (20.2)	0.60 (1.17)			
Smoking experience	Yes	15 (2.5)	1.13 (1.50)	-2.56	.011	
	No	588 (97.5)	0.48 (0.96)			
Drinking experience	Yes	29 (4.8)	1.35 (1.49)	-4.87	<.001	
	No	574 (95.2)	0.45 (0.93)			
Drug use experience	Yes	2 (0.3)	1.00 (0.00)	-12.61	<.001	
	No	601 (99.7)	0.50 (0.98)			
Experience of sexual abuse	Yes	36 (6.0)	1.25 (1.46)	-4.85	<.001	
	No	567 (94.0)	0.45 (0.92)			
Level of the attraction to the same sex	Yes	574 (95.2)	0.49 (0.99)	0.78	.460	
	No	13 (2.2)	0.31 (0.48)			
	Both	16 (2.7)	0.75 (1.00)			
Experience of talked about it with your parents	Yes	411 (68.2)	0.53 (1.04)	-1.21	.227	
	No	192 (31.8)	0.43 (0.83)			
Experience of talked about it with your friends	Yes	336 (55.7)	0.41 (0.97)	2.37	.018	
	No	267 (44.3)	0.60 (0.98)			

SD: standard deviation.

명(31.0%), 2학년이 189명(31.3%), 3학년이 227(37.6%)이었고, 남학생이 344명(57.0%), 여학생이 259명(43.0%)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359명(58.5%), 종교가 없는 학생이 250명(41.5%)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학생이 323명(53.6%)로 가장 많았으며, ‘하’인 학생 154명(25.5%), ‘중상’인 학생이 88명(14.6%), ‘상’인 학생이 3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인 학생이 323명(53.6%)로 가장 많았고, ‘상’인 학생 158명(26.2%), ‘하’인 학생 122명(20.2%) 순이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명(2.5%),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은 588명(97.5%)이었으며,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명(4.8%),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574명(95.2%)이었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2명(0.3%)이었고, 약물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601명(99.7%)이었으며, 성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명(6.0%)이었고, 성학대 경험이 없는 학생은 567명(94.0%)이었다. 동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는 ‘느끼지 않는다’가 574명(9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성과 동성에게 느낀다’ 16명(2.7%), ‘동성에게 느낀다’ 13명(2.2%) 순이었다.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은 411명(68.2%)이었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학생은 192명(31.8%)이었으며, 자신의 고민에 대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학생은 336명(55.7%),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학생은 267명(44.3%)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정도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 중 성태도는 최소값 19점, 최대값 73점이었고, 평균 34.7±9.16점이었으며, 성허용성은 최소값 16점, 최대값 64점으로 평균 32.43±10.82점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최소값 4점, 최대값 28점으로 평균 21.88±6.83점이었으며, 성행동 의도는 최소값 3점, 최대값 21점, 평균 17.24±5.70점이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최소값 16점, 최대값 62점, 평균 47.36±8.66점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최소값 17점, 최대값 68점, 평균 52.32점이었다. 친구집단 성태도는 최소값 6점, 최대값 28점, 평균 11.18±3.80점이었고, 음란물 접촉은 최소값 7점, 최대값 35점, 평균 4.15±9.45점이었다.

중학생의 성행동은 최소값 0점, 최대값 5점이었으며, 평균 0.50±0.98점이었다[Table 2].

[Table 2] Means of Research Variables for the Subjects

Variables	Mean (SD)	Min-Max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34.07 (9.16)	19-73
Sexual permissiveness	32.43 (10.82)	16-6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1.88 (6.83)	4-28
Sexual behavioral intention	17.24 (5.70)	3-21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47.36 (8.66)	16-64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52.32 (8.42)	17-68
Friends' attitudes to sex	11.18 (3.80)	6-28
Exposure to pornography	4.15 (9.45)	7-35
Sexual behavior	0.50 (0.98)	0- 5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5.76, p=.003$), 성별($t=-2.38, p=.018$), 흡연 경험($t=-2.56, p=.011$), 음주 경험($t=-4.87, p<.001$), 약물사용 경험($t=-12.61, p<.001$), 성학대 경험($t=-4.85, p<.001$),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t=2.37, 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과 3학년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약물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학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를 하는 학생에 비해 대화를 하지 않는 학생이 성행동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종교유무, 경제수준, 성적, 동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는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 중 성태도($r=.47, p<.001$), 성허용성($r=.50, p<.001$), 친구집단 성태도($r=.52, p<.001$), 음란물 접촉($r=.41, p<.001$)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고, 지각된 행위통제($r=-.26, p<.001$), 성행동 의도($r=-.31, p<.001$), 아버지의 양육태도($r=-.23,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r=-.22, p<.001$)는 성행동과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of Subjects

Variables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Sexual permissivenes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xual behavioral intentio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Friends' attitudes to sex	Exposure to pornograph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exual permissiveness	.63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1 (<.001)	-.10 (.018)						
Sexual behavioral intention	-.44 (<.001)	-.26 (<.001)	.39 (<.001)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06 (.168)	.00 (.989)	-.06 (.162)	-.01 (.849)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07 (.109)	.01 (.908)	-.03 (.519)	.04 (.341)	.71 (<.001)			
Friends' attitudes to sex	.57 (<.001)	.60 (<.001)	-.10 (.012)	-.22 (<.001)	.04 (.387)	.04 (.303)		
Exposure to pornography	.43 (<.001)	.52 (<.001)	-.10 (.013)	-.20 (<.001)	.12 (.003)	.07 (.081)	.43 (<.001)	
Sexual behavior	.47 (<.001)	.50 (<.001)	-.26 (<.001)	-.31 (<.001)	-.23 (<.001)	-.22 (<.001)	.52 (<.001)	.41 (<.001)

[Table 4] Predict Variables of Sexual Behavior

Predictor	B	β	t	p
Friends' attitudes to sex	0.21	.37	11.16	<.001
Drinking experience (No/Yes)*	1.60	.24	5.45	<.001
Experience of sexual abuse (No/Yes)*	1.43	.21	5.12	<.001
Sexual permissiveness	1.38	.19	4.15	<.001
Exposure to pornography	2.12	.15	3.41	.001
Sexual behavioral intention	-1.21	-.14	3.11	.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59	-.13	2.95	.003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1.43	-.11	2.79	.005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1.42	-.9	2.79	.007

$R_{adj}^2 = .510$ F=36.44 p<.001

R_{adj}^2 =Adjusted R Square.

* Dummy variables.

3.5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요인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결과, 중학생의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학년, 성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사용 경험, 성학대 경험 및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와 성행동 관련 변인 중 성태도, 성허용도, 지각된 행위통제, 성행동 의도,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친구집단 성태도 및 음란물 접촉을 관련변수로 하고 불연속변수를 더미변수로 전환한 후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적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2 ~ -.71로 .80 이상인 설명변수

가 없어 관련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791로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86 ~ .97로 1.0 이하,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35 ~ 1.63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증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대값은 .095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7].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는 친구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9개의 변수가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행동에 가장 큰 관련요인은 친구집단 성태도($\beta = .3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주 경험($\beta = .24$), 성학대 경험($\beta = .21$), 성허용성($\beta = .19$), 음란물 접촉($\beta = .15$), 성행동 의도($\beta = .14$), 지각된 행위통제($\beta = -.13$), 아버지의 양육태도($\beta = -.11$),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집단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부모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부모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임신이 두려워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학생이 성행동이 높았으며, 성허용성이 높을수록,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아버지 양육태도가 비개방적일수록 성행동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중학생의 성행동을 51.0% 설명하고 있었다($F = 36.44, p < .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정도는 최대 5점 만점에 평균 0.5±0.98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적 특색이 유사한 고등학생의 성행동을 파악한 Min[13]의 연구에서 평균이 0.2점이었고, Choi[4]의 연구에서 성행동의 정도가 최고 26점 만점에 평균 5.38±7.44 점임을 고려했을 때 과거보다 현재가 청소년의 성행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in[13]의 연구에서보다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허용성이 개방적이었고, 성행동 의도도 높았으며, 이들 변수의 평균은 Park과 Jung [8]의 연구에서 보다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으로 친구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였으며, 이들 요인은 중학생 성행동의 51.0%를 설명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중학생 개인 내적 요인, 가족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설명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학생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요인 접근의 중요성

[6,7]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요인은 친구집단 성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집단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과 Kim[15]의 연구와 Kotchick 등[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친구 집단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준거집단이고[28], 십대들의 행동결정은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집단의 동조로 인한 안정감 때문에 성행동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4], 성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친구집단 간에 건전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에게 자신이 어떤 행위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때 결정할 권리는 친구가 아닌 본인 자신에게 있으며,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음주 경험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는 제외되었지만 단변량 분석에서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약물사용 경험에 따라 성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위험행동이 성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1,7,9]와 일맥상통한다. 외국의 경우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위험행동은 약물사용 경험이었으며[7], 국내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이 증가한다는 Han 등[9]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 증가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과 같은 위험행동을 통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중재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위험행동이 성행동으로 이행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세 번째 관련요인은 성학대 경험이었다. 이는 아동기에 성피해를 경험한 경우 재희생 및 부적절한 성경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다는 Tieden과 Thoennes[29]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재희생 집단이 성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행동이 높았다는 Kim[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기 성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성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학대 예방과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개인요인으로 성허용성,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 통제가 있었다. 이는 성허용성이 개방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위험 성행

동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8,13]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중학생의 성태도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성행동의 관련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8,13]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허용성의 긍정적 전환과 성행동의도를 조절하고 지각된 행위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학생의 친구집단 성태도 이외에도 음란물 접촉 정도가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지역사회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음란물 접촉과 관련하여 처음 접촉하는 시기가 주로 중학교 시절이며, 음란물 접촉 후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는 중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Kim [1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 갈등과 성 비행이 증가하고, 음란물을 모방하게 될 경우 부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잘못된 성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성문제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8]. 이를 근거로 본다면 청소년의 성행동 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인 성교육과 음란물 접촉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행동이 낮았다는 Chen 등[7]과 Kang[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성행동 위험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1,6,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설명력이 높았다는 것은 Jo와 Kim[1]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이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위험 성행동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Jo와 Kim [1]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위험 성행동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성별에 따른 성행동 관련요인의 차이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와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 개인체계에서는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성행동 의도 및 지각된 행위 통제, 가족체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주변환경체계에서는 친구집단 성태도, 음란물 접촉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올바른 성행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성교육의 최적 시기가 성에 대한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12~13세경임을 고려할 때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정체성 확립과 성행동을 위해서는 각 체계별

중요한 관련요인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개인체계의 성허용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성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는 지각된 행위 통제[8]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중학생 성행동에 친구집단 성태도가 가장 큰 관련요인임을 고려할 때 중학생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래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 경험을 비롯한 여러 위험행동을 하면서 성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험행동 전반에 대한 예방과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 성행동에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음란물 접촉, 성학대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중학생 바람직한 성정체감과 성행동을 위해서는 중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아동기 성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음란물 접촉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중학생 성행동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행동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층화표집을 통해 한국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후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 성행동 예방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 성행동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과 주변 환경적 접근에 필요한 청소년 성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청소년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입인 간호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은 친구 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였으며, 이들 요인은 중학생 성행동의 51.0%를 설명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중학생의 성행동의 관련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학년성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사용 경험, 성학대 경험,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에 따라 중학생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친구집단 성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경험과 성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성허용성이 개방적일수록, 음란물 접촉이 높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부정적일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중학생 성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개인, 가족 및 주변환경 체계별 관련 요인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다체계적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다체계적 성행동 관련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간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Y. Jo, & Y. H. Kim, A path model of self, family, & extrafamilial system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exual risk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4, No.3, pp.181-195, 2006.
- [2] M. S. Yoon, & J. K.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0, pp.272-300, 2008.
- [3] E. Gruber, & J. W. Gruber,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 *Western Journal of Medicine*, Vol.172, pp.210-214, 2000. DOI: <http://dx.doi.org/10.1136/ewj.172.3.210>
- [4] C. S. Choi,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sexuality and sexual behavior prediction model in 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 in Kangwon provinc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0.
- [5] J. Y. Kang,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elf-control, and delinquency on sexual risk behavior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07.
- [6] B. A. Kotchick, A. Shaffer, R. Forehand, & K. S. Miller, Adolescent's sexual risk behavior: A multi-system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1, No.4, pp.493-519,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272-7358\(99\)00070-7](http://dx.doi.org/10.1016/S0272-7358(99)00070-7)
- [7] A. C. Chen, E. A. Thompson, & D. Morrison-Beedy, Multi-system influences on adolescent risky sexual behavior.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33, No.6, pp.512-5, 2010. DOI: <http://dx.doi.org/10.1002/nur.20409>
- [8] H. S. Park, & S. Y. Jung, Validation of a path model to prevent sexual risk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0, No.1, pp.49-60, 2011.
- [9] S. H. Han, M. S. Lee, & S. H. Lee, A study on the sexual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7, No.1, pp.19-39, 2000.
- [10] K. E. Bae, & Y. H. Kang,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self-esteem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Journal of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Vol.10, No.1, pp.36-47, 2007.
- [11] H. J. Kwon, K. H. Kim, M. H. Choi, & H. Y. Kim,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tal Health Nursing*, Vol.15, No.2, pp.170-178, 2006
- [12] C. S. Lee, & Y. J. Kim, Focused on perceptive differences of boys and girls: A study on love and sexual attitude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1, pp.277-296, 2003.
- [13] S. H. Min, A study on the decisive fa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2005.
- [14] S. W. Lee, & M. Y. Chon,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8, No.4, pp.553-563, 2006.
- [15] J. S. Kim, & K. H. Kim, A study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permissiveness for male students of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2, No.4, pp.169-194, 2005.
- [16] H. Y. Koo, & S. S. Kim,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37, No.7, pp.1202-1211, 2007

[17] K. H. Kim,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revictimised undergraduat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4.

[18] J. S. Park, & J. W. Mo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actual practice of sex among middle school girls in Seoul. *Journal of Korean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14, No.3, pp.343-370, 2003.

[19]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Vol.50, No.2, pp.179-211, 1991.
DOI: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20] Y. M. Lee,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experienc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0.

[21] I. L. Reiss, The scale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26, pp.188-198, 1964.
DOI: <http://dx.doi.org/10.2307/349726>

[22] M. J. Jeong, H. S. Park, J. S. Lee, & C. A. Park,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3, No.6, pp.11-23, 1995.

[23] G. Parker,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34, pp.138-147, 1979.
DOI: <http://dx.doi.org/10.1192/bjp.134.2.138>

[24] K. J. Moon, & K.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1, No.1, pp.29-43, 2002.

[25]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about unmarried mothers. Seoul: Author, 1984.

[26] H. J. Lee, Relationship among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 factors, exposure to obscenity, and sexual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1997.

[27] H. S. Seo, SPSS (PAS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009

[28] J. H. Kim, & K.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3, No.1, pp.123-138, 2008.

[29] P. Tiaden, & N. Thoennes, Full report of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Research Report No. NCJ 183781).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2000.

정 선 영(Sun Young Jung)

[정회원]



- 2002년 2월 :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중재 및 교육, 중독, 청소년 정신건강

박 현 숙(Hyun Sook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후과정)
- 1996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교육

조 금 이(Geum Yi Jo)

[정회원]



- 1994년 8월 ~ 2008년 12월 : 서대구 대동병원 간호과장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상담, 교육